

Fund Flow



뛰는 놈(TDF) 위에 나는 놈(CIT)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oh.gwang-young@shinyoung.com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TD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됨. 미국에서는 TDF가 2014년 이후 연평균 14.4% 증가하여 2021년말 기준 1.8조 달러 규모로 퇴직연금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성장함. 최근 미국에서는 TDF와 유사한 CIT가 급부상 중.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s)는 TDF와 유사한 운용전략을 가진 신탁상품으로 TDF 비교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보수가 저렴하고 유연성이 높아 인기. CIT의 규모는 2014년 이래 TDF 성장률의 2.6배가 넘는 연평균 38% 성장해 2021년말 기준 약 1.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함. 국내에서는 TDF가 2011년에 처음 소개되어 현재 NAV는 약 10.6조 원 수준으로 16개 운용사에서 130개의 펀드를 운용 중이며 특히 하반기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됨. 한편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TDF의 보수율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Target Date 관련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가능성이 존재함



Content

| | |
|------------------------------------|----|
| I. 3월 국내 펀드시장 결산..... | 3 |
| 1. 전월말 대비 0.5%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 5 |
|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 6 |
|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 7 |
|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 9 |
|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 11 |
|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 13 |
|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 16 |
| II. 뛰는 놈(TDF) 위에 나는 놈(CIT)..... | 19 |
| 1.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TDF..... | 19 |
| 2. 글로벌 TDF 시장 현황과 CIT소개..... | 21 |
| 3. 국내 TDF 시장 현황 및 분석..... | 30 |

뛰는 놈(TDF) 위에 나는 놈(CIT)

3월 국내 펀드시장 결산

(1) 전월말 대비 0.5%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전체 시장 규모:
전월말 대비 0.5% 성장한
약 4.3조 증가하여
822.3조 기록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시장 전체 설정원본(=설정액)은 한 달 동안 MMF, 채권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특별자산형, 부동산형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전월말 대비 0.5% 성장한 총 4조 2,988억 증가하여 822.3조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550조, 해외 투자 펀드 규모는 272조로 국내 펀드 : 해외 펀드 = 66.9% : 33.1%로 MMF, 채권형 등을 중심으로 국내 펀드가 감소하여 전월 말 대비 국내 펀드 비중이 0.4% 축소됐다.

MMF 설정액:
월초 자금과 시중 여유자금 등이
유입되며 한때 163조 대를 돌파
했으나 월말로 갈수록 분기말 자금
수요,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감소하여 결국 153.0조 기록

지난 달 한때 173조 대를 돌파한 이후 월말로 갈수록 월말 자금 수요 등으로 감소하여 결국 직전 달 대비 3.8조 감소하며 154.2조 대를 기록했던 MMF 설정액은 3월 들어서도 월초 자금 유입 및 시중 여유 자금 유입 등으로 한때 163조 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월말로 갈수록 분기말 자금 수요 및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감소하여 결국 한 달 동안 약 1.2조 감소한 153.0조를 기록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
국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로 자금이 유출되어
3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됨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강도 및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우려와 분기말을 앞두고 기관의 자금 수요 등으로 국내 채권형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2조 1,069억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2조 이상 감소했으며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도 소폭 감소했다.

특별자산형 설정액:
해외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2.2조 이상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특별자산형 펀드 설정액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끝에 2조 2,314억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부동산형 펀드 설정액은 기관의 자금 집행과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증가하면서 1조 2,211억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재간접형 펀드 설정액도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1조 5,568억 증가하여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도표 1.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현황

| 구분 | 국내 | | | 해외 | | | 총합계 |
|-----------|----------------|----------------|----------------|---------------|----------------|----------------|----------------|
| | 공모 | 사모 | 소계 | 공모 | 사모 | 소계 | |
| 주식형 | 51,901 | 11,015 | 62,916 | 25,167 | 8,208 | 33,375 | 96,292 |
| 혼합형 | 15,456 | 13,784 | 29,240 | 2,645 | 1,048 | 3,692 | 32,932 |
| - 혼합주식형 | 2,494 | 6,003 | 8,497 | 1,191 | 206 | 1,397 | 9,894 |
| - 혼합채권형 | 12,962 | 7,781 | 20,743 | 1,454 | 842 | 2,295 | 23,039 |
| 채권형 | 31,487 | 91,361 | 122,848 | 2,668 | 4,555 | 7,222 | 130,070 |
| MMF | 114,842 | 38,170 | 153,012 | 0 | 0 | 0 | 153,012 |
| 파생상품 | 13,471 | 13,583 | 27,053 | 13,951 | 10,133 | 24,084 | 51,137 |
| 부동산 | 740 | 59,675 | 60,415 | 2,287 | 65,915 | 68,202 | 128,618 |
| 재간접 | 1,356 | 5,767 | 7,122 | 15,673 | 32,725 | 48,397 | 55,520 |
| 특별자산 | 2,562 | 53,069 | 55,632 | 657 | 65,210 | 65,867 | 121,499 |
| PEF | 0 | 2,751 | 2,751 | 0 | 0 | 0 | 2,751 |
| 혼합자산 | 354 | 28,585 | 28,939 | 4,367 | 17,132 | 21,499 | 50,438 |
| 전체 | 232,169 | 317,761 | 549,930 | 67,415 | 204,931 | 272,345 | 822,275 |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작, 2022-03-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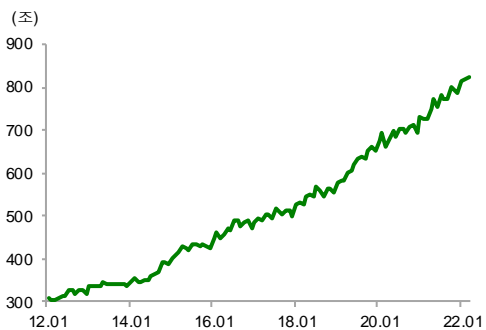
도표 2.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전년말 대비 증감규모 및 증감률

| 구분 | 증감 규모 | | | 증감률 | | |
|-----------|-------------|--------------|---------------|--------------|-------------|--------------|
| | 국내 | 해외 | 합계 | 국내 | 해외 | 합계 |
| 주식형 | 709 | 1,054 | 1,763 | 1.1% | 3.3% | 1.9% |
| 혼합형 | -22 | 9 | -14 | -0.1% | 0.2% | 0.0% |
| - 혼합주식형 | 84 | -12 | 72 | 1.0% | -0.8% | 0.7% |
| - 혼합채권형 | -106 | 20 | -86 | -0.5% | 0.9% | -0.4% |
| 채권형 | -2,004 | -103 | -2,107 | -1.6% | -1.4% | -1.6% |
| MMF | -1,215 | 0 | -1,215 | -0.8% | - | -0.8% |
| 파생상품 | 34 | 138 | 173 | 0.1% | 0.6% | 0.3% |
| 부동산 | 896 | 325 | 1,221 | 1.5% | 0.5% | 1.0% |
| 재간접 | 198 | 1,359 | 1,557 | 2.9% | 2.9% | 2.9% |
| 특별자산 | 720 | 1,512 | 2,231 | 1.3% | 2.3% | 1.9% |
| PEF | 2 | 0 | 2 | 0.1% | - | 0.1% |
| 혼합자산 | 315 | 372 | 687 | 1.1% | 1.8% | 1.4% |
| 전체 | -366 | 4,665 | 4,299 | -0.1% | 1.7% | 0.5% |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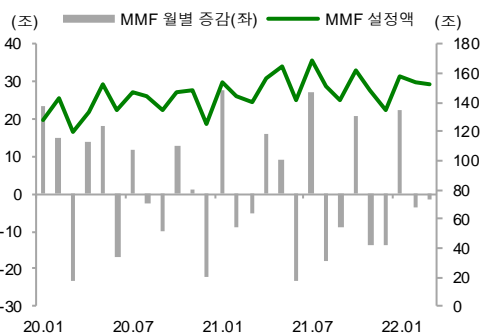
단위: 십억작, 2022-03-31기준

도표 3. 시장 전체 설정액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MMF 설정액 및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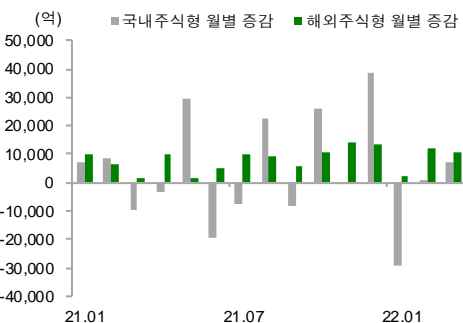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채권형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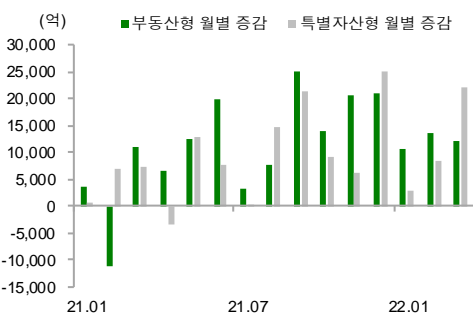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국내/해외 주식형 설정액 월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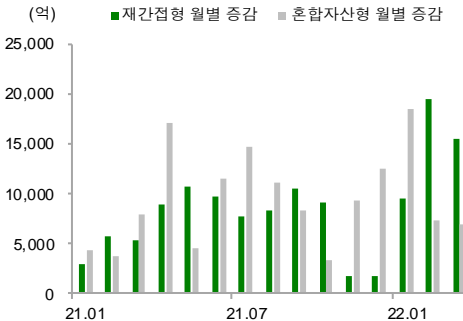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설정액 월별 증감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설정액 월별 증감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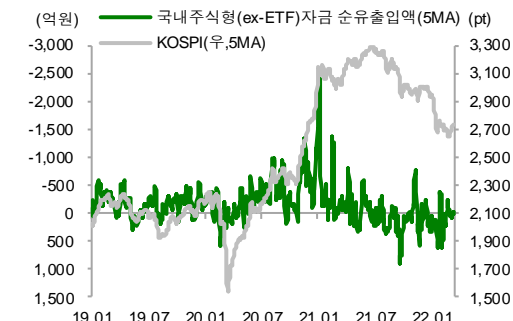
3월 국내 증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 부담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부합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KOSPI는 2,757.65pt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17% 상승하여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보험(+11.6%), 운송(+6.9%), 건설(+6.7%), IT소프트웨어(+6.3%)업종은 강세를 보였으나 필수소비재(-2.8%), 임의소비재(-0.5%)업종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407억 원 순유출 되며 3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하지만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여전히 2,295억 원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나누어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KOSPI200 추종 ETF를 중심으로 총 1,851억 원 순유출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5,273억 원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월간 자금 흐름:
증시 상승 속에 직전 월 대비
환매 규모보다 신규 투자자금
유입 규모가 더욱 많이 감소하여
556억 원 순유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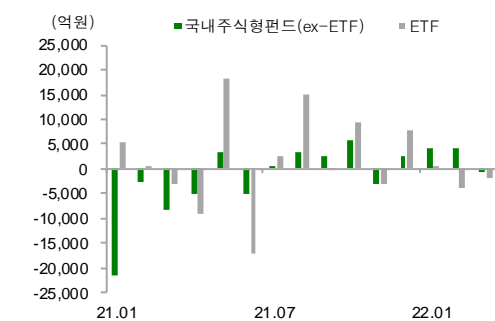
3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자금 흐름은 3월 들어서는 556억 원이 순유출 되며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는 증시의 상승 속에 환매 규모(MoM, 일평균 379억 → 374억) 보다 신규 투자 규모(MoM, 일평균 608억 → 347억)가 더욱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아직 7,568억 원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도표 9.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자금흐름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3-31기준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인덱스주식코스피200 유형
펀드 설정액 감소:
대규모 차익실현성 환매로
설정액이 감소하여
3,031억 감소를 기록

3월 공모형 국내 투자 펀드 설정액 증감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주식형은 액티브 유형은 소폭 증가했으나 패시브 유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어 결국 감소를 기록했다. 설정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국내 인덱스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주식코스피200 유형으로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성 환매 증가 등으로 3,031억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인덱스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2차전지 추종 펀드와 여행 섹터 또는 IT 섹터 업종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604억 증가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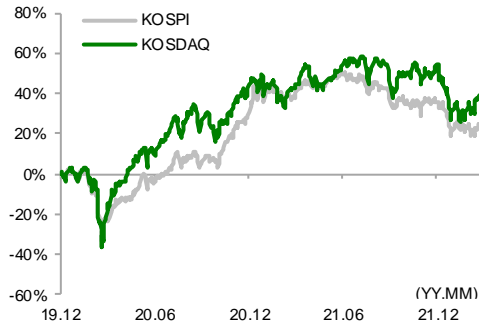
국내 액티브주식형 중
액티브주식배당 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과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226억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 중 최근 증시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양호한 성과를 보인 액티브주식배당 유형은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226억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은 일부 ESG 펀드와 삼성그룹주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55억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소부장 펀드와 IT섹터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65억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 등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환매 출회로 136억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과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형과 초단기채권형 펀드 유형은 기관의 자금 집행과 시중 유동 자금의 유입 등으로 각각 3,954억과 5,428억 증가했다. 또한 지난 달 감소세를 보였던 국공채권형도 1,474억 증가하여 결국 3월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 증감은 총 1조 122억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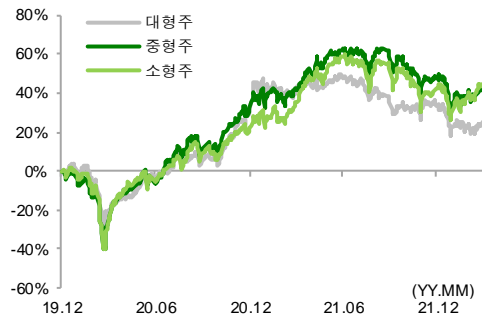
3월 유형별 월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KOSPI 2.17%, KOSPI200 1.13%, KOSDAQ 7.20%, KOSDAQ150 6.01%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 세부 유형 중 액티브주식중소형 펀드가 코스닥 및 코스피 소형주의 강세 영향으로 4.7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인덱스주식코스피200 유형은 KOSPI200이 여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영향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세부 유형 내 약세를 기록했다.

도표 11. KOSPI VS KOSDAQ 누적수익률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2. KOSPI 대형주 VS 중형주 VS 소형주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3. 국내 펀드 세부 유형별 설정액 및 수익률

| 대유형 | 소유형 | 설정액(억) | | | 수익률(%) | | | | | |
|--------|-------------|---------|---------|--------|--------|--------|--------|--------|-------|-------|
| | | '220331 | '220228 | 증감 | 1M | 3M | 6M | 1Y | 3Y | 5Y |
| 국내 주식형 | 액티브주식일반 | 89,036 | 88,918 | 119 | 3.26 | -7.18 | -5.89 | -5.82 | 32.57 | 31.10 |
| | 액티브주식중소형 | 11,554 | 11,690 | -136 | 4.78 | -7.12 | -5.46 | 3.25 | 46.46 | 52.10 |
| | 액티브주식배당 | 28,769 | 28,543 | 226 | 2.45 | -3.18 | -2.90 | -2.99 | 29.27 | 31.45 |
| | 액티브주식섹터 | 7,435 | 7,270 | 165 | 4.02 | -11.16 | -6.84 | -4.36 | 49.04 | 81.57 |
| | 액티브주식테마 | 16,270 | 16,115 | 155 | 2.86 | -6.95 | -6.24 | -5.73 | 36.89 | 58.05 |
| | 인덱스주식코스피200 | 79,049 | 82,081 | -3,031 | 1.89 | -7.09 | -7.30 | -10.62 | 40.67 | 44.03 |
| | 인덱스주식KRX300 | 1,923 | 1,933 | -10 | 2.34 | -9.14 | -8.99 | -12.82 | 37.23 | 0.00 |
| | 인덱스주식섹터 | 51,397 | 49,793 | 1,604 | 4.38 | -11.15 | -12.10 | -4.09 | 48.39 | 57.76 |
| | 인덱스주식기타 | 154,677 | 154,664 | 14 | 3.92 | -10.09 | -9.70 | -11.50 | 40.96 | 49.00 |
| 국내 혼합형 | 자산배분 | 4,206 | 4,236 | -30 | 1.64 | -4.14 | -3.35 | -2.24 | 20.45 | 17.75 |
| | 주식혼합 | 34,128 | 34,188 | -59 | 1.97 | -4.61 | -3.49 | -1.90 | 20.95 | 22.68 |
| | 채권혼합 | 101,354 | 102,280 | -925 | 0.54 | -2.31 | -1.88 | -1.23 | 12.02 | 16.21 |
| | 채권알파 | 6,447 | 6,816 | -368 | 0.10 | -0.35 | -0.55 | 0.49 | 5.50 | 10.98 |
| | 하이일드혼합 | 20,159 | 20,847 | -688 | 0.64 | 0.23 | -0.74 | 4.38 | 13.88 | 28.59 |
| 국내 채권형 | 국공채권 | 52,004 | 50,530 | 1,474 | -0.83 | -2.17 | -2.26 | -2.39 | 0.12 | 5.05 |
| | 회사채권 | 18,245 | 18,979 | -734 | -0.32 | -0.53 | -0.48 | -0.20 | 3.99 | 9.54 |
| | 일반채권 | 158,850 | 154,896 | 3,954 | -0.56 | -1.18 | -1.14 | -1.06 | 2.27 | 6.99 |
| | 초단기채권 | 84,786 | 79,358 | 5,428 | 0.07 | 0.25 | 0.42 | 0.68 | 3.63 | 7.29 |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2022-03-31기준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일부 ESG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 기록:
중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ESG펀드로 신규 매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 기록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월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운용), 대신인덱스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 KB스타한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일부 인덱스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 등의 ESG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 등의 IT 비중이 높은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투자신탁1(주식) 펀드도 자금 유입되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중소형주 펀드와
코스닥벤처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가 하위 기록

반면 자금흐름이 감소한 펀드를 살펴보면, 한화Smart++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운용) 등의 일부 인덱스 펀드에서 환매가 출회되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1[주식], 현대M멀티-헤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등의 일부 중소형주 펀드와 코스닥벤처 펀드에서 환매가 출회되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4.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순자산 | 증감 | 1M | 6M | 1Y |
|----------------------------|------------|-------|-------|------------|------|-------|--------|
|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운용) | 2008-12-22 | 2,601 | 3,859 | 168 | 1.89 | -7.02 | -9.63 |
| 대신인덱스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18-10-23 | 1,207 | 1,780 | 160 | 1.87 | -6.41 | -6.91 |
|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 2019-10-21 | 3,568 | 6,290 | 145 | 3.69 | -4.63 | 0.84 |
|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09-04-21 | 1,640 | 7,580 | 137 | 3.97 | -4.35 | -1.16 |
| 현대인베스트먼트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22-01-21 | 175 | 170 | 120 | 1.88 | 0.00 | 0.00 |
| 하나UBS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07-05-04 | 1,853 | 3,694 | 110 | 4.12 | -2.05 | 0.08 |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 | 2020-12-02 | 1,251 | 1,657 | 108 | 2.86 | -0.46 | 5.30 |
|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06-03-24 | 939 | 1,209 | 107 | 1.77 | -4.26 | -7.62 |
| 유리힘찬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 | 2020-03-23 | 226 | 284 | 100 | 2.85 | -4.96 | -3.28 |
| KB스타한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09-02-04 | 804 | 1,143 | 99 | 1.90 | -7.18 | -10.27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순자산 | 증감 | 1M | 6M | 1Y |
|------------------------------------|------------|-------|--------|--------|-------|--------|--------|
| 한화Smart++인덱스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운용] | 2007-06-12 | 1,810 | 2,770 | -1,850 | 1.80 | -7.02 | -9.62 |
|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 | 2007-09-10 | 1,258 | 1,770 | -240 | 3.86 | -6.00 | 2.09 |
|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 2006-03-15 | 8,239 | 11,544 | -207 | 1.88 | -7.02 | -9.68 |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운용) | 2007-04-05 | 284 | 272 | -90 | 3.01 | -4.29 | -3.24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 | 2007-05-28 | 2,149 | 3,006 | -85 | 3.08 | -4.74 | -2.93 |
| 흥국마켓리더스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 | 2007-05-29 | 235 | 230 | -63 | 2.17 | -5.57 | -4.36 |
| 현대M멀티-헤지코스닥벤처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혼합] | 2021-01-04 | 397 | 460 | -51 | 5.44 | 3.23 | 7.94 |
|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종류) | 2005-11-16 | 358 | 525 | -39 | 2.21 | -8.14 | -10.71 |
|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파생형] | 2018-02-07 | 478 | 308 | -28 | 13.55 | -16.99 | -13.04 |
|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파생형] | 2018-04-05 | 919 | 1,672 | -27 | 3.34 | -5.65 | 1.70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파생형],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재간접파생형), 삼성코스닥150 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파생형] 등의 코스닥150 레버리지 펀드가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혼합), 한국밸류10년투자중소형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종류모,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운용), 플러스텐배거중소형주증권투자자산신탁1(주식) 등의 중소형주 펀드도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운용) 등의 헬스케어 펀드와 가치주 펀드도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덜오른 대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가 약세를 보이며 월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트러스트밸류웨이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운용), 한국밸류지속성장ESG 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모), DB진주찾기고배당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_운용 등의 일부 가치주 펀드와 배당주 펀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 월간 수익률 하위에 랭크 됐다. 또한 하나UBS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자산신탁V-1[주식], 키움코리아에이스증권투자자산신탁 1[주식] 등의 펀드도 상대적으로 덜오른 대형주의 비중이 높아 약세를 보이며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산신탁1(주식), 우리파워연금액티브증권전환형투자자산신탁 1(주식) 등의 연금 펀드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도표 16.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1M | 3M | 6M | 1Y | 3Y |
|----------------------------------|------------|-------|-------|--------|--------|--------|-------|
|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2018-02-07 | 478 | 13.55 | -24.21 | -16.99 | -13.04 | 6.95 |
|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파생형) | 2018-01-25 | 408 | 13.16 | -24.61 | -18.01 | -13.95 | 3.82 |
| 삼성코스닥150 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2016-03-14 | 940 | 9.88 | -18.68 | -12.83 | -8.60 | 15.92 |
|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 2018-04-05 | 159 | 8.46 | -7.55 | 4.25 | 12.55 | 48.30 |
| 한국밸류10년투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 | 2013-12-24 | 123 | 7.83 | -7.45 | -1.39 | -2.10 | 73.85 |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13-01-30 | 474 | 7.83 | -10.36 | -15.54 | -15.51 | 22.59 |
|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09-11-10 | 1,652 | 7.71 | -8.54 | -5.36 | 1.76 | 20.18 |
|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11-12-30 | 831 | 7.51 | -8.57 | -1.71 | 11.68 | 38.91 |
| KB코리아뉴딜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20-10-07 | 1,719 | 7.40 | -12.16 | -11.74 | -1.84 | - |
| 플러스텐배거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15-09-30 | 120 | 7.16 | -8.66 | -3.87 | 2.64 | 63.40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1M | 3M | 6M | 1Y | 3Y |
|--------------------------------|------------|-------|------|--------|-------|--------|-------|
|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 | 2001-01-31 | 3,012 | 1.16 | -5.85 | -3.70 | -7.46 | 37.89 |
| 트러스트밸류웨이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 2013-07-25 | 146 | 1.22 | -3.51 | -2.64 | -3.02 | 34.77 |
| 한국밸류지속성장ESG증권투자신탁(주식)(모) | 2018-07-04 | 143 | 1.28 | -3.18 | 1.57 | 2.63 | 68.13 |
| DB진주참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1[주식]_운용 | 2014-08-08 | 140 | 1.49 | -0.79 | -0.09 | 3.39 | 55.92 |
| 한국투자업브랜더인덱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파생형) | 2008-01-23 | 308 | 1.57 | -7.30 | -7.49 | -10.92 | 39.31 |
| 하나HBS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V-1[주식] | 2002-03-09 | 334 | 1.58 | -6.65 | -6.67 | -9.04 | 43.75 |
| 우리파워연금엑티브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 | 2006-12-13 | 307 | 1.62 | -8.36 | -8.14 | -7.53 | 46.16 |
|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 2001-02-02 | 1,571 | 1.63 | -11.36 | -9.43 | -10.10 | 42.53 |
| 우리지속가능ESG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04-10-07 | 112 | 1.64 | -6.64 | -5.27 | -8.59 | 55.15 |
| 키움코리아에이스증권투자신탁 1[주식] | 2004-11-03 | 145 | 1.72 | -4.92 | -5.01 | -5.86 | 43.22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북미 펀드 월간 설정액 증가:
나스닥, 반도체, S&P500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배당주 펀드 및 성장주 펀드
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3,923억 증가하며
2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해외 펀드 월간 설정액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펀드가 S&P500 지수,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배당주 펀드 및 성장주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3,923억 증가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이래 2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해당 기간 동안 7조 8,580억 증가하여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 설정액은 글로벌 테크 펀드,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펀드, 배당주 펀드, 반도체지수 펀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2,286억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 펀드는 약세를 보인 홍콩 H증시 관련 인덱스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 등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중국 4차산업 관련 펀드 등으로도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2,126억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중화권 펀드도 전기차와 중국 2차전지 관련 펀드를 비롯해 일부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설정액이 한 달 동안 1,627억이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도표 18.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설정액 및 수익률

| 구분 | 설정액(억) | | | 수익률(%) | | | | | |
|-------------|---------|---------|-------|--------|--------|--------|--------|--------|--------|
| 지역/국가 | '220331 | '220228 | 증감 | 1M | 3M | 6M | 1Y | 3Y | 5Y |
| 글로벌 | 118,887 | 116,601 | 2,286 | 5.90 | -6.49 | -1.91 | 4.09 | 46.86 | 66.47 |
| 글로벌이며징 | 1,602 | 1,571 | 31 | -1.39 | -8.01 | -11.13 | -12.11 | 11.01 | 23.13 |
| EMEA | 40 | 37 | 4 | -16.44 | -40.54 | -40.47 | -33.82 | -21.73 | -19.27 |
| 브릭스 | 2,385 | 2,456 | -71 | -3.98 | -12.42 | -19.67 | -22.29 | 2.51 | 24.23 |
| 신흥아시아 | 3,335 | 3,319 | 15 | 0.98 | 0.91 | 1.03 | 3.09 | 23.52 | 29.70 |
| 친디아 | 1,862 | 1,849 | 13 | -4.82 | -11.75 | -17.21 | -21.89 | 17.25 | 47.05 |
| 중국 | 62,057 | 59,931 | 2,126 | -9.43 | -15.93 | -18.27 | -22.58 | 8.97 | 31.15 |
| 중화권 | 26,131 | 24,504 | 1,627 | -10.64 | -20.07 | -17.75 | 22.12 | 71.32 | 107.75 |
| 베트남 | 9,121 | 9,177 | -56 | 0.91 | 2.39 | 8.61 | 34.71 | 58.88 | 95.96 |
| 인도 | 4,535 | 4,504 | 31 | 6.42 | -1.91 | -3.29 | 25.45 | 60.55 | 78.10 |
| 아시아퍼시픽 | 1,658 | 1,671 | -13 | 0.21 | -11.79 | -15.23 | -13.38 | 27.79 | 48.47 |
| 아시아퍼시픽(ex_) | 7,498 | 7,473 | 25 | -4.70 | -11.12 | -12.27 | -14.83 | 26.11 | 59.18 |
| 일본 | 1,286 | 1,298 | -13 | 5.94 | -3.62 | -7.88 | -2.36 | 22.01 | 34.49 |
| 유럽 | 3,733 | 3,719 | 14 | 5.82 | -5.57 | -0.83 | 6.50 | 27.80 | 30.28 |
| 신흥유럽 | 523 | 523 | -1 | -17.49 | -49.39 | -52.26 | -42.85 | -39.50 | -35.76 |
| 러시아 | 2,000 | 1,587 | 414 | -41.01 | -69.87 | -71.68 | -65.73 | -58.57 | -53.27 |
| 북미 | 87,645 | 83,722 | 3,923 | 8.62 | -5.38 | 5.35 | 19.32 | 73.83 | 112.20 |
| 중남미 | 671 | 691 | -20 | 14.14 | 24.69 | 18.70 | 25.07 | 11.03 | 10.93 |
| 브라질 | 839 | 801 | 38 | 14.75 | 33.81 | 18.90 | 24.65 | 6.70 | 23.26 |

자료: 해외 공모펀드형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펀드 강세 기록:
글로벌 증시가 연준의 예상에 부
합한 금리 인상과 경제 관련 긍정
적 평가 그리고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한 달 동안 5.90% 상승

해외 펀드 월간 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준의
예상에 부합한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 관련 긍정적 평가 그리고 양호한 경
제 지표 등으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 데다가 특히 연초 이후 증시 급
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글로벌 펀드는
한 달 동안 5.9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유형 중 브라질 펀드가 한 달 동안 14.75% 급등하며 지난 달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이어 갔는데 이는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의 강세 영
향으로 원자재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은 브라질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
문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MSCI지수 제외에 따른 수혜로 수급도 크게 개
선되며 상승세에 힘을 더했다. 또한 브라질 증시 비중이 높은 중남미 펀
드도 14.14% 상승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인도 펀드가 6.4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완화, 정부 개혁 정책,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등이 증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증시 부진에 따른 상대적 매력
부상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글로벌 펀드로의
월간 자금흐름 유입세:
글로벌 테크 펀드,
전기차 펀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 기록

해외 주식형 펀드(ex-ETF)의 월간 펀드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피
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
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
신탁H[주식]-운용,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밸리티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등의 일부 글로벌 펀
드가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AB미국그로스증권투
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파생형)(운용)와 같은 일부 북미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
랐다. 또한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와 같은 원자재 관련 펀드
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투자자신탁H[주식], 미래에셋글로벌글로벌로스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등의 일부 글로벌 펀드와 북미 펀드가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증권투자자신탁 1(주식)과 같은 중국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또한 하이월드광업주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H), IBK골드마이닝증권투자자신탁1[주식], 하이월드골드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H)와 같은 일부 광업주 펀드와 Gold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표 19.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순자산 | 증감 | 1M | 6M | 1Y |
|------------------------------------|------------|--------|--------|------------|-------|-------|-------|
|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15-06-17 | 11,188 | 33,401 | 847 | 8.26 | 0.83 | 8.12 |
|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투자자신탁H(주식) | 2020-04-16 | 3,100 | 4,831 | 619 | 7.23 | 8.32 | 12.54 |
|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자신탁(주식) | 2017-10-26 | 11,563 | 17,581 | 591 | 3.23 | 0.20 | 10.31 |
| AB미국로스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10-03-30 | 9,196 | 21,857 | 445 | 5.30 | -0.84 | 13.41 |
|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H[주식]-운용 | 2020-02-05 | 1,136 | 1,993 | 326 | 6.27 | 9.82 | 19.58 |
| 한화연자원증권투자자신탁(주식) | 2008-02-22 | 1,390 | 1,113 | 171 | 11.64 | 34.12 | 42.19 |
| KB스타미국니스닥100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 2017-12-27 | 825 | 1,835 | 148 | 8.72 | 3.36 | 18.11 |
|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13-02-20 | 6,961 | 10,228 | 129 | 5.08 | 4.42 | 5.78 |
|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 2009-06-03 | 989 | 2,141 | 105 | 8.01 | 7.20 | 18.07 |
|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유틸리티증권투자자신탁H(주식) | 2016-05-20 | 2,162 | 4,358 | 101 | 5.15 | -2.72 | 8.58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표 20.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순자산 | 증감 | 1M | 6M | 1Y |
|-------------------------------|------------|-------|-------|-------------|-------|--------|--------|
| 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투자자신탁H[주식] | 2009-11-25 | 232 | 454 | -140 | 6.84 | 3.63 | 13.62 |
|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 2007-05-08 | 322 | 478 | -106 | -8.01 | -19.54 | -26.02 |
| 하이월드광업주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H) | 2008-09-18 | 762 | 907 | -105 | 11.78 | 34.82 | 28.35 |
| 한국투자베트남로스증권투자자신탁(주식) | 2016-02-17 | 2,805 | 5,880 | -94 | 1.69 | 9.13 | 33.74 |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 2007-11-15 | 287 | 381 | -74 | -7.99 | -24.62 | -24.69 |
| 미래에셋글로벌로스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 2014-04-15 | 747 | 1,453 | -59 | 4.02 | -8.72 | -4.61 |
| IBK골드마이닝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 2007-04-16 | 169 | 221 | -50 | 8.52 | 29.57 | 17.67 |
|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증권투자자신탁 1(주식) | 2008-07-08 | 606 | 997 | -48 | -9.76 | -19.39 | -29.78 |
| 슈로더글로벌지속가능성장주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20-07-27 | 2,072 | 2,803 | -44 | 7.30 | -2.44 | 7.37 |
| 하이월드골드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H) | 2008-09-18 | 697 | 586 | -44 | -0.08 | 15.23 | 4.96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브라질 펀드
원자재 가격의 강세와
수급 개선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
로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등의 브라질 펀드가 원자재 가격의 강세와 러시아의 MSCI지수 제외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영향 등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브라질 증시의 비중이 높은 신한중남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의 중남미 펀드도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녹색성장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각되며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또한 KB글로벌수소경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삼성에너지트랜지션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녹색성장펀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각되며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러시아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증권투자신탁1[주식] 등의 러시아 펀드는 러시아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운용) 등의 중국 펀드도 중국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21.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1M | 3M | 6M | 1Y | 3Y |
|------------------------------|------------|-------|-------|-------|--------|--------|--------|
|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 | 2008-01-03 | 105 | 15.21 | 38.10 | 21.85 | 22.22 | 4.21 |
|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 2016-10-05 | 116 | 15.05 | 33.02 | 17.58 | 28.25 | 13.93 |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 2007-12-06 | 237 | 15.03 | 32.95 | 17.53 | 28.20 | 13.87 |
| KB글로벌수소경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 2021-02-15 | 528 | 14.49 | -4.60 | -12.12 | -15.43 | - |
| 삼성에너지트랜지션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2021-01-28 | 810 | 14.22 | -6.24 | -12.33 | -14.12 | - |
| 신한중남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 | 2007-04-05 | 237 | 14.07 | 28.81 | 20.56 | 22.77 | 2.77 |
|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07-06-26 | 178 | 13.92 | 28.04 | 18.32 | 24.92 | 24.33 |
|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 | 2007-06-26 | 981 | 13.60 | -9.30 | -1.65 | 2.80 | 71.36 |
| KB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 2007-10-16 | 186 | 13.15 | 33.87 | 24.27 | 29.27 | 10.32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 | 2007-04-17 | 3,076 | 13.12 | 2.99 | -0.26 | -1.82 | 114.38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 펀드명 | 설정일 | 설정액 | 1M | 3M | 6M | 1Y | 3Y |
|------------------------------------|------------|-------|--------|--------|--------|--------|--------|
|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산탁 1(주식) | 2007-12-06 | 154 | -59.56 | -80.63 | -81.93 | -77.74 | -71.60 |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산탁 1(주식) | 2015-06-02 | 194 | -59.34 | -80.49 | -81.80 | -77.59 | -71.39 |
|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증권투자자산탁 1[주식] | 2007-05-22 | 401 | -32.34 | -65.03 | -66.57 | -58.42 | -49.84 |
| 미래에셋러시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자산탁(주식-파생재간접형) | 2012-04-20 | 361 | -20.90 | -22.17 | -34.41 | -57.98 | -63.69 |
| 키움Eastern Europe증권투자자산탁 1[주식] | 2006-10-17 | 183 | -14.95 | -48.65 | -50.62 | -39.58 | -31.25 |
|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투자자산탁(주식-파생재간접형)(운용) | 2013-03-11 | 341 | -13.87 | -22.43 | -20.59 | -28.71 | 8.21 |
| 삼성중국본토레버리지증권투자자산탁 1[주식-파생재간접형] | 2013-01-21 | 480 | -13.58 | -21.63 | -20.08 | -28.46 | 8.93 |
| 미래에셋러시아-레버리지1.5증권투자자산탁(주식-파생재간접형) | 2015-06-04 | 848 | -12.80 | -13.71 | -22.49 | -42.48 | -44.69 |
| KB연금중국본토A주증권투자자산탁(주식)(운용) | 2014-10-14 | 686 | -12.38 | -17.21 | -13.76 | -9.25 | 44.90 |
| KB중국본토A주증권투자자산탁(주식)(운용) | 2011-03-23 | 3,903 | -12.33 | -17.13 | -13.71 | -9.33 | 44.04 |

단위: 억, %, 2022-03-31 기준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3월 신규 펀드 현황
및 규모:
직전 월 대비 증가한
월간 244개
신규 펀드 론칭,
총 5조 3,088억 설정

유형별 신규 펀드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4개의 신규 펀드가 설정되었으며 설정 규모는 총 5조 3,088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17억 규모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직전 월 대비 신규 펀드수는 22.6% 증가했으며 설정 규모는 9.9%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공모와 사모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44억의 신규 펀드가 총 73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3,176억이었다. 또한 사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292억의 신규 펀드가 총 171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4조 9,912억 이었다.

신규 펀드가 제일 많이 설정된 유형은 파생상품형으로 총 55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2,540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46억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형으로 총 40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8,708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18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재간접형으로 총 35개의 펀드가 설정되었으며 그 규모는 총 5,479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157억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펀드 당 평균 신규 설정 규모가 가장 큰 펀드 유형은 특별자산형으로 펀드당 평균 약 623억 규모의 펀드가 23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

조 4,319억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으로 펀드당 평균 562억 규모의 펀드가 25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1조 4,050억 이었다.

도표 23. 월간 유형별 신규 펀드 수 및 설정액

| 구분 | 세부 구분 | 공모 | | | 사모 | | | 합계 |
|----------|----------|-------|-------|-------|--------|--------|--------|--------|
| | | 국내 | 해외 | 소계 | 국내 | 해외 | 소계 | |
| 주식형 | 펀드수 | 3 | 7 | 10 | 6 | 1 | 7 | 17 |
| | 설정액 | 360 | 384 | 744 | 808 | 23 | 831 | 1,575 |
| 혼합 주식 | 펀드수 | 0 | 0 | 0 | 9 | 0 | 9 | 9 |
| | 설정액 | 0 | 2 | 2 | 687 | 0 | 687 | 689 |
| 혼합 채권 | 펀드수 | 1 | 0 | 1 | 9 | 0 | 9 | 10 |
| | 설정액 | 391 | 0 | 391 | 1,596 | 0 | 1,596 | 1,987 |
| 채권형 | 펀드수 | 2 | 0 | 2 | 23 | 0 | 23 | 25 |
| | 설정액 | 290 | 0 | 290 | 13,760 | 0 | 13,760 | 14,050 |
| 재간접 | 펀드수 | 1 | 6 | 7 | 3 | 25 | 28 | 35 |
| | 설정액 | 32 | 259 | 291 | 359 | 4,829 | 5,188 | 5,479 |
| 단기 금융 | 펀드수 | 0 | 0 | 0 | 0 | 0 | 0 | 0 |
| | 설정액 | 0 | 0 | 0 | 0 | 0 | 0 | 0 |
| 파생형 | 펀드수 | 24 | 29 | 53 | 1 | 1 | 2 | 55 |
| | 설정액 | 360 | 1,099 | 1,459 | 1,000 | 81 | 1,081 | 2,540 |
| 부동산 | 펀드수 | 0 | 0 | 0 | 36 | 4 | 40 | 40 |
| | 설정액 | 0 | 0 | 0 | 6,998 | 1,710 | 8,708 | 8,708 |
| 특별 자산 | 펀드수 | 0 | 0 | 0 | 9 | 14 | 23 | 23 |
| | 설정액 | 0 | 0 | 0 | 5,670 | 8,649 | 14,319 | 14,319 |
| 혼합 자산 | 펀드수 | 0 | 0 | 0 | 19 | 11 | 30 | 30 |
| | 설정액 | 0 | 0 | 0 | 3,021 | 2,207 | 3,741 | 3,741 |
| 합계 | 펀드수 | 31 | 42 | 73 | 115 | 56 | 171 | 244 |
| | 설정액 | 1,432 | 1,744 | 3,176 | 32,414 | 17,498 | 49,912 | 53,088 |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3-31 기준

단위: 억,개

신규로 설정된 공모 펀드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들이 글로벌 펀드와 북미 펀드 등의 유형으로 출시되었다.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배당, ESG, MZ소비, 우주항공&UAM 등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의 상품들이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니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리츠 인프라 대한 관심 증가 속에 관련 펀드가 신규 출시 되었다.

도표 24. 월간 신규 주요 공모 펀드

| 구분 | 펀드명 | 유형* | 설정일 | 설정액** |
|----|--|---------|----------|-------|
| 1 | DB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41[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03 | 38 |
| 2 | 신한K리츠초인프라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종류) | 부동산기타 | 20220304 | 32 |
| 3 | DB지수연계트리플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79[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07 | 29 |
| 4 |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164[ELS-파생형](종류) | ELF | 20220307 | 27 |
| 5 | KB파워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N-68(온라인전용)(ELS-파생형) | ELF | 20220307 | 20 |
| 6 | KT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NSE-102[ELS-파생형](공)(운) | ELF | 20220307 | 17 |
| 7 | 메리츠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52[ELS-파생형] | ELF | 20220307 | 15 |
| 8 | KB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302(온라인전용)(ELS-파생형) | ELF | 20220307 | 14 |
| 9 | 한국투자지속가능미국와이드모드증권투자신탁H(주식)(모) | 북미주식 | 20220311 | 21 |
| 10 | DB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42[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11 | 21 |
| 11 | DB지수연계트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SNE-13[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14 | 31 |
| 12 | KB파워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N-69(온라인전용)(ELS-파생형) | ELF | 20220314 | 16 |
| 13 | KB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305(온라인전용)(ELS-파생형) | ELF | 20220315 | 23 |
| 14 | 삼성KODEX차이나2차전자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중국주식 | 20220318 | 800 |
| 15 | 삼성KODEX미국클린에너지나스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북미주식 | 20220318 | 150 |
| 16 | 한국투자지속가능미국와이드모드증권투자신탁(USD)(주식)(모) | 북미주식 | 20220318 | 0 |
| 17 | 한국투자지속가능미국와이드모드증권투자신탁UH(주식)(모) | 북미주식 | 20220318 | 0 |
| 18 | 삼성글로벌배당귀족ESG증권투자신탁H[주식] | 글로벌주식 | 20220318 | 19 |
| 19 | DB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43[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18 | 17 |
| 20 | 교보약사그린디지털목표환권투자신탁[주식](운용) | 액티브주식일반 | 20220321 | 86 |
| 21 | NH-Amundi하나로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라이프사이클 | 20220321 | 2 |
| 22 |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N-17[ELS-파생형](종류) | ELF | 20220322 | 24 |
| 23 |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투자신탁[주식] | 정보기술섹터 | 20220323 | 12 |
| 24 | 삼성글로벌배당귀족ESG증권투자신탁UH[주식] | 글로벌주식 | 20220323 | 0 |
| 25 | 대신하이일드공모주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운용) | 하이일드혼합 | 20220325 | 391 |
| 26 | DB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K-11[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25 | 39 |
| 27 | DB한국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4[채권]_운용 | ELF | 20220325 | 21 |
| 28 | KT지수연계플러스증권투자신탁NSE-109[ELS-파생형](공)(운) | ELF | 20220325 | 16 |
| 29 | DB지수연계트리플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82[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25 | 16 |
| 30 | NH-Amundi올바른지구OCIO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해외자산배분 | 20220328 | 150 |
| 31 | 한국밸류VITAMZ소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인덱스주식기타 | 20220328 | 170 |
| 32 | 한화ARIRANGiSelect우주항공&UA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인덱스주식기타 | 20220328 | 103 |
| 33 |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E-1[채권](종류) | ELF | 20220328 | 269 |
| 34 | KB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312(온라인전용)(ELS-파생형) | ELF | 20220328 | 19 |
| 35 | 한국투자TDF알아서2055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모) | 라이프사이클 | 20220331 | 26 |
| 36 | 한국투자TDF알아서2055증권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모) | 라이프사이클 | 20220331 | 26 |
| 37 | 한국투자TDF알아서2060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모) | 라이프사이클 | 20220331 | 26 |
| 38 | 한국투자TDF알아서2060증권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모) | 라이프사이클 | 20220331 | 26 |
| 39 | DB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KSE-45[ELS-파생형]_운용 | ELF | 20220331 | 25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설정일순 정렬, MMF,ETF제외

단위: 억, *유형: Fn-Spectrum 세부 평가 유형 기준, **설정액: 2022-03-31기준

뛰는 놈(TDF) 위에 나는 놈(CIT)

(1)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T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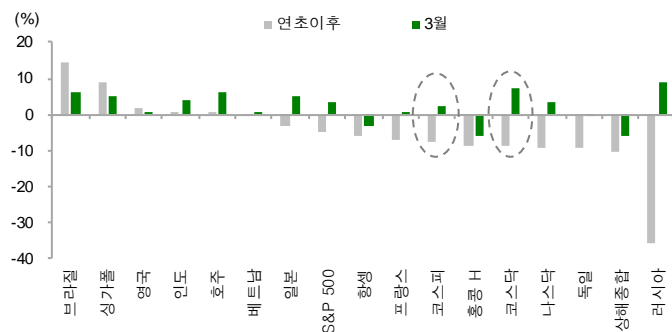
KOSPI는 지난 달에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상승 기록

3월 국내 증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 부담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부합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 연준의 경기에 대해 강한 자신감 피력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영향이 축소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완화되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기대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KOSPI는 2,757.65 pt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17% 상승하여 마감했다.

연초 이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
부진한 성과 기록

하지만 연초 이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KOSPI는 -7.39%, KOSDAQ는 -8.65%로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높아진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2,295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3월 들어 증시 상승에 따라 한 달 동안 2,407억 원 순유출 되며 3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도표 25. 2022년 연초 이후 주요국 증시 성과



자료 : Bloomberg,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높아진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TDF 펀드로
자금이 지속 유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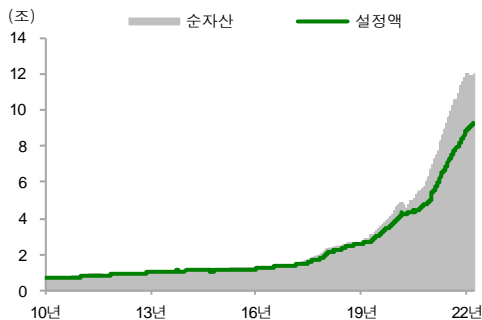
3월말 현재 Fn-Spectrum에서 발표하는 테마별 자금 흐름을 연초 이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부 ETF(해외주식, 국내채권), 레버리지, 퇴직연금(공모) 펀드 유형 등으로 1~3조 이상의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라이프사이클 펀드 유형으로도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그 중 Target Date Fund 유형으로 연초 이후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6. 테마 유형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15

| 테마 | 설정액 (억) | 순자산 (억) | 수익률(%) | | | 자금흐름(억) | | |
|-----------|------------|------------|--------|--------|--------|---------|---------------|---------|
| | | | 1M | YTD | 1Y | 1M | YTD | 1Y |
| ETF(해외주식) | 136,319 | 192,319 | 2.68 | -8.77 | 12.88 | 7,823 | 37,280 | 131,822 |
| 레버리지 | 40,139 | 58,334 | 4.79 | -16.66 | -17.96 | 708 | 15,563 | 9,504 |
| 퇴직연금(공모) | 249,531 | 303,848 | 1.81 | -4.31 | -0.11 | 2,773 | 14,558 | 65,565 |
| ETF(국내채권) | 100,023 | 102,642 | -0.30 | -0.88 | -0.68 | 7,210 | 12,649 | 19,009 |
| 라이프사이클 | 93,319 | 120,202 | 2.41 | -4.99 | 0.16 | 2,212 | 7,569 | 43,280 |
| 삼성그룹펀드 | 16,405 | 27,532 | 2.79 | -7.31 | -6.48 | 2,126 | 4,002 | 705 |
| 연금저축 | 139,103 | 166,103 | 1.62 | -5.69 | -2.47 | 1,853 | 3,916 | 10,918 |
| IT펀드 | 37,900 | 72,339 | 4.85 | -8.45 | -3.15 | 1,871 | 3,475 | 12,556 |
| 배당주펀드 | 86,990 | 107,080 | 2.29 | -3.06 | -0.42 | 1,362 | 2,368 | 2,872 |
| 퇴직연금(사모) | 3,982 | 3,875 | 0.00 | -4.30 | -0.57 | 558 | 1,568 | 1,960 |
| SRI펀드 | 40,661 | 49,549 | 1.67 | -3.84 | -1.35 | 494 | 1,046 | 23,584 |
| ESG(주식) | 16,562 | 25,380 | 3.49 | -6.73 | -4.92 | -248 | 635 | 5,766 |
| 천연자원펀드 | 20,568 | 10,795 | 10.10 | 23.67 | 41.84 | 1,242 | 523 | -2,901 |
| EMP | 11,181 | 14,701 | 3.34 | -3.59 | 3.52 | 259 | 421 | 4,488 |
| 기타그룹펀드 | 5,453 | 5,512 | 2.40 | -7.61 | -9.10 | 6 | 376 | 9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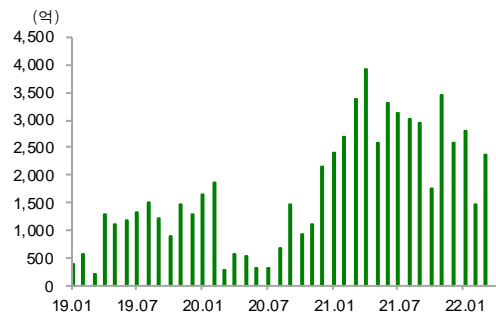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대상,
단위: 억 원, 2022-03-31, YTD 자금 흐름 기준 정렬

도표 27. 라이프사이클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TDF 펀드 설정액 월별 증감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글로벌 TDF 시장 현황과 CIT소개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 예상 연도를 기준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배분하는 모델 소위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에 따라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로 각 자산의 비중을 펀드내에서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실행해준다는 편리함이 장점이다. 대부분의 TDF펀드 글라이드 패스는 은퇴 예상 연도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춘 동적 자산배분이 특징이다.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데다가 최근에는 은퇴 이후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자금을 시장 환경 및 본인 상태에 맞춰 지속적인 리밸런싱 등을 하면서 관리해야 하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준다는 점이
TDF의 가장 큰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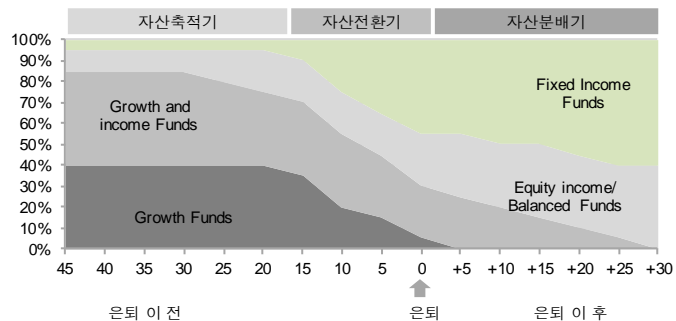
TDF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상품으로 은퇴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산배분 하여 리밸런싱을 해주는 펀드이다.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리밸런싱을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점이 TD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글라이드 패스
(Glide Path)가
TDF의 핵심 경쟁력

TDF는 통상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자산축적기에는 기대 성과가 높은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되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은퇴 이후에는 그 때까지 운용되어온 자산을 수령하는 시기로 적절한 수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시기 투자의 기본 목적은 자산 보존에 맞춰 운용되게 된다. 이처럼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배분해주는 모델인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가 TDF의 핵심 경쟁력이다.

또한 여기에 대부분의 TDF들이 안정적 성과 추구를 위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펀드로 어려운 지역적 자산배분까지 해결하게 된다.

도표 29. Glide Path 예시



자료 : American Fu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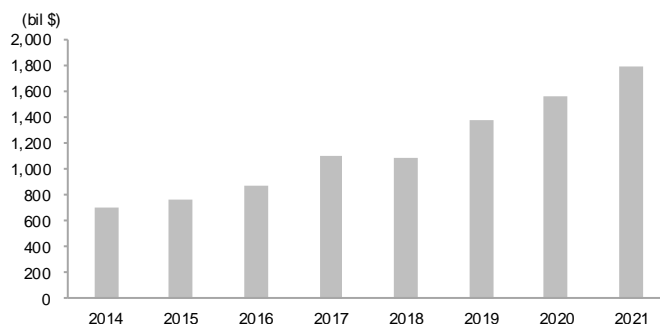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미국 TDF시장 급성장

글로벌 TDF(Target Date Fund)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93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TDF는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에서 디폴트옵션(자동가입제도)이 도입되고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플랜의 하나인 401k를 통한 TDF투자가 증가하며 급성장을 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14.4%씩 성장하여
2021년말 기준
1.8조 달러 규모로 성장

글로벌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2014년말 7,027억 달러 수준이었던 TDF 규모는 연평균 14.4% 이상씩 성장하여 2021년말 기준 1.8조 달러까지 성장했다. 2018년에는 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다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다.

도표 30. Target Date Fund Assets 추이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TDF 펀드로
자금 흐름은 지난 해
순유입으로 전환됨

글로벌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TDF는 예상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Retirement(은퇴),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등 11개 유형(빈티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TDF로의 자금 흐름은 직전 해에는 2020년 유형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인해 순유출을 보였지만 지난 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30 이후 유형으로 대부분 자금이 유입되며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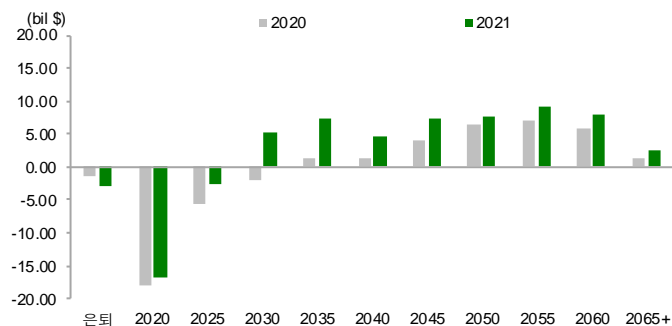
특히 젊은 Z세대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2050, 2055, 2060 유형
이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2050, 2055, 2060 유형과 같이 은퇴기간까지 많이 남은 유형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욱 많이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Z세대 근로자의 53%가 2021년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최근의 Fidelity 보고서와도 일맥상통 한다. 이와 같은 젊은 층의 투자 증가는 TDF시장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젊은 Z세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Z세대를 비롯해 보다 넓은 세대에서 TDF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의 약 38%가 401(k) 기여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401(k)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TDF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표 31. 최근 2개년 Target Date Fund 세부 유형별 자금 흐름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IT가 TDF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어

그런데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노후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은 Target Date Fund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미국에서 소개된 CIT (Collective Investment Trust)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TDF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s)는 TDF와 유사한 운용전략을 가진 신탁 상품으로 금융기관 또는 신탁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퇴직Plan(기관)만 가입 가능

CIT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와 같이 Target-Date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 등을 모아 집합적으로 관리되는 신탁 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운용 전략과 관리되는 형식은 Target Date Fund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탁 상품이다. 이에 CIT는 투자자에게 보다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으로 운용 회사에서 관리하고 대부분의 퇴직 plan(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CIT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신탁 회사 등을 통해 특정 자격을 갖춘 퇴직 plan(기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장점: CIT는 TDF와 보다 보수는 저렴하고 유연성을 갖춰

CIT는 확정기여형(DC)플랜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다. Target Date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TDF와 CIT를 유사하게 전략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비용은 CIT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CIT는 뮤추얼 펀드와 달리 각 펀드 클래스의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IT는 자산 크기에 따라 다양한 플랜에 대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 달러인 plan은 5억 달러가 있는 plan보다 비용을 적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개인 보다 규모가 큰 DC의 Plan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리테일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보다 비용이 절감 되는 등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특히 자체적인 신탁 시스템 안에서 유가증권 교차 거래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처럼 낮은 보수와 유연성이 높은 점이 CIT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 CIT는 TDF와 보다 투명성은 부족

그러나 CIT는 뮤추얼 펀드 대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IT를 관리하는 회사는 포트폴리오 관리자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이 공개된 채널을 통해 상품 정보 확인이 어렵다. 뮤추얼 펀드는 1940년 개정된 투자 회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

회(SEC)의 규제를 받으며 관리 문서는 주로 투자설명서와 부속설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CIT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노동부의 고용 퇴직 소득 보장법(the Department of Labor's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규제를 받는다. CIT 제공자는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IRS 및 DOL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CIT는 신탁선언 및 투자/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동시에 CIT 관리자는 ERISA 수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CIT 관련 기관은 해당 플랜의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플랜 계정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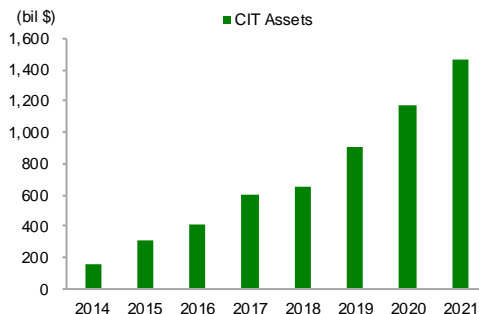
CIT도 관련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웹 포털을 통해 가입자는 온라인에서 정보 접근 가능

이처럼 CIT는 특정 자격을 갖춘 퇴직 Plan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정보 및 티커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가입자는 관련 금융기관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지정된 웹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CIT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CIT의 규모는 2014년 이래 TDF 성장률의 2.6배가 넘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약 1.5조 달러 수준으로 전체 Target Date Strategy 상품의 45%까지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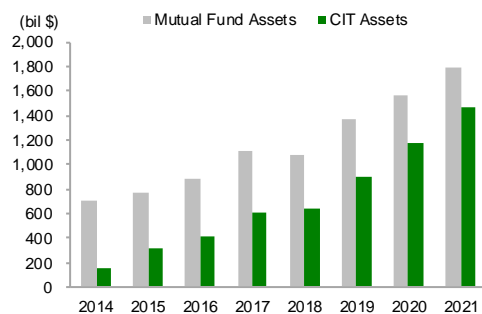
최근 모닝스타에서는 Target Date Fund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한 CIT를 묶어서 'Target Date Strategy' 상품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TDF시장에서도 우위를 보여왔던 Vanguard, Fidelity, T. Rowe Price, Black Rock, JP Morgan, State Street 등이 CIT시장의 주요 공급자이다. CIT의 규모(Assets)는 2014년 이래 TDF 성장률의 2.6배가 넘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지난 해 기준으로 약 1.5조 달러 수준으로 전체 Target Date Strategy 상품의 45%까지 성장했다.

도표 32. 연도별 CIT 규모 추이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연도별 TDF vs CIT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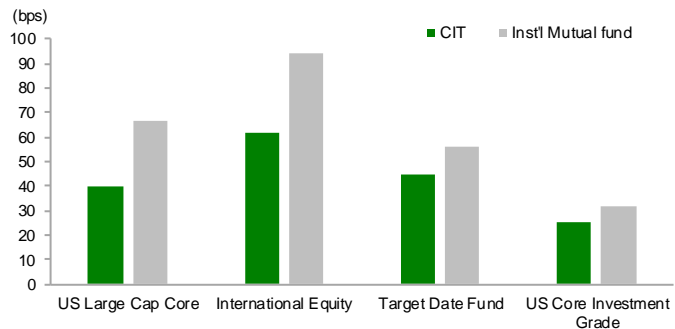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4. CITs vs Mutual Funds

| 구분 | CITs | Mutual Funds |
|---------|--|--|
| 설명 |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탁 회사가 관리하고 특정 적격 퇴직 plan에만 제공되는 집합투자 수단 | 일반적으로 운용 회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집합투자 수단으로 대부분의 퇴직 plan과 일반 대중이 가입 |
| 감독 및 규제 | -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IRS, DOL 규제 - 기금 수탁자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ERISA 표준의 적용을 받기도 함 | - 1940년 개정된 투자 회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
| 관리 문서 | 신탁선언 및 투자/운영 지침의 적용 -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펀드 fact sheet를 제공 받음 | 주로 투자설명서, 부속설명서 -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펀드 fact sheet를 제공 받음 |
| 보고 |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DOL 및 ERISA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Form 5500 Schedule C 및 ERISA 섹션 404a-5 및 408(b)(2)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연간보고서 - DOL 및 ERISA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Form 5500 Schedule C 및 ERISA 섹션 404a-5 및 408(b)(2)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 수수료 구조 | - multiple share classes - 유연한 수수료 정책 (협상된 수수료 책정 가능) | - multiple share classes (단, 동일class 내에서는 같은 수수료) |
| trading | - 대부분은 NSCC를 통해 거래 - 일반적으로 일일 평가 | - NSCC 거래 - 일반적으로 일일 평가 |

자료: SSG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5. CIT vs Target Date (Mutual) Fund 의 수수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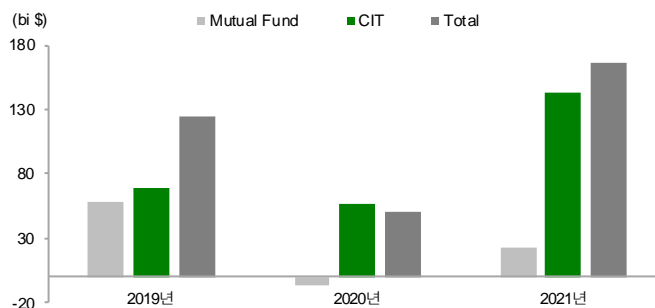
자료 : SSGA, Mercer Global Asset Manager Fee Survey 2016,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Fees assume \$100M asset minimum level

CIT로의 자금 흐름은 TDF에 비해 압도적인 순유입 규모를 기록함

최근 3개년 연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CIT의 인기를 알 수 있었는데, 지난 2019년에는 전체 Target Date Strategy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 중 CIT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의 비중이 54% 수준이었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이를 넘어 압도적인 비중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6. 연도별 Target Date (Mutual) Funds vs CITs 로의 자금 흐름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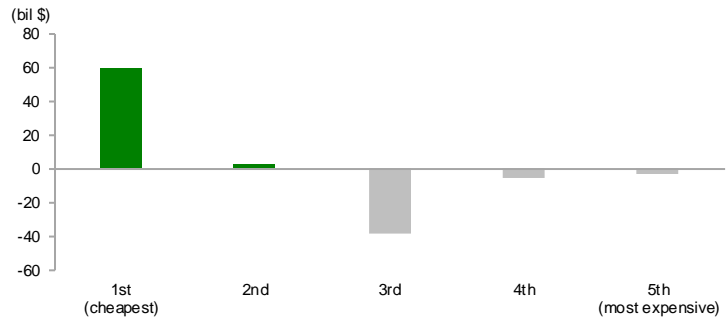
CIT의 장점 중 저렴한 보수는 초장기 상품에서 특히 큰 강점으로 작용함

CIT가 가진 장점을 대표적으로 낮은 보수와 높은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낮은 보수이다. 전세계적으로 일반 액티브 펀드 대비 패시브 펀드(ETF 포함)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바로 낮은 보수에 따른 성과 개선 효과이기 때문이다. TDF는 편리한 대신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높고 초장기 상품이다. 이로 인해 낮은 보수율이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DF도 유형내에서 보수가 저렴한 펀드로만 자금이 순유입 되고 있음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 해 Target Date (Mutual) Fund 로의 자금 흐름을 보수율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펀드 보수가 낮은 그룹은 자금이 유입된 데 반해 보수 수준이 중간 이상일 경우 오히려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가 가장 낮은 그룹은 590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으며, 두 번째로 저렴한 그룹은 약 30억 달러가 순유입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분위 그룹은 380억 달러 이상이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7. 2021년 보수 수준별 Target Date Mutual Fund로의 자금흐름



자료 :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에서도 Target Date 전략의 유용성에 동의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더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보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향후 국내에서도 TDF의 보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트렌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TDF 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금은 운용사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도표 38. Top10 Target-Date Providers

| 회사 | Target-Date Series | Assets(bil \$) | | | M/S(%) | |
|----------------|--|----------------|-----|-------|--------|------|
| | | Mutual Fund | CIT | Total | 2021 | 2020 |
| Vanguard | | | | 1,190 | 36.4 | 36.7 |
| | Vanguard Target Retirement | 660 | 530 | | | |
| Fidelity | | | | 460 | 14.1 | 13.3 |
| | Fidelity Freedom | 221 | - | | | |
| | Fidelity Freedom Index | 106 | 46 | | | |
| | Fidelity Freedom Blend | 11 | 55 | | | |
| | Fidelity Advisory Freedom | 21 | - | | | |
| | Fidelity Flex Freedom Blend | <1 | - | | | |
| | Fidelity Managed Retirement | <1 | - | | | |
| T.Rowe Price | | | | 374 | 11.5 | 11.6 |
| | T.Rowe Price Retirement | 180 | 170 | | | |
| | T.Rowe Price Target | 4 | 1 | | | |
| | T.Rowe Price Retirement Hybrid | - | 16 | | | |
| | T.Rowe Price Retirement Blend | <1 | 4 | | | |
| BlackRock | | | | 289 | 8.8 | 9.5 |
| | BlackRock LifePath Index | 61 | 226 | | | |
| | BlackRock LifePath Dynamic | 1 | 1 | | | |
| | BlackRock LifePath ESG Index | <1 | - | | | |
| American Funds | | | | 248 | 7.6 | 7.2 |
| | American Funds Target Date Retirement | 239 | 9 | | | |
| State Street | | | | 122 | 3.7 | 3.2 |
| | State Street Target Retirement | 12 | 110 | | | |
| JPMorgan | | | | 110 | 3.4 | 3.8 |
| | JPMorgan SmartRetirement | 36 | 5 | | | |
| | JPMorgan SmartRetirement Blend | 15 | 38 | | | |
| | JPMorgan SmartRetirement(Direct Real Estate) | - | 14 | | | |
| | JPMorgan SmartRetirement Blend(DRE) | - | 2 | | | |
| Nuveen | | | | 87 | 2.7 | 2.7 |
| | TIAA-CREF Lifecycle | 42 | - | | | |
| | TIAA-CREF Lifecycle Index | 42 | <1 | | | |
| | Nuveen TIAA Lifecycle Blend | - | 2 | | | |
| Principal | | | | 85 | 2.6 | 2.7 |
| | Principal LifeTime Hybrid | 3 | 54 | | | |
| | Principal LifeTime | 26 | 2 | | | |
| Schweb | | | | 31 | 0.9 | 1.0 |
| | Schweb Target | 5 | 12 | | | |
| | Schweb Target Index | 4 | 1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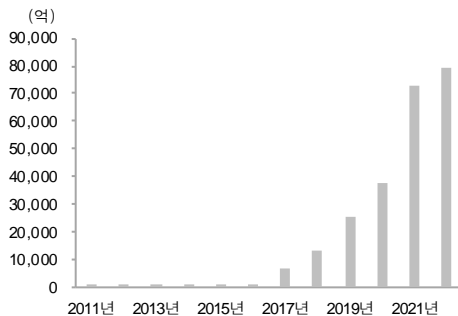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USD in Billions, %, 2021-12-31기준

(3) 국내 TDF 시장 현황 및 분석

국내 TDF 시장은
2022년 3월말 현재
16개 운용사에서 130개의
펀드를 운용 중이며
설정액은 7.9조, NAV는
10.6조 원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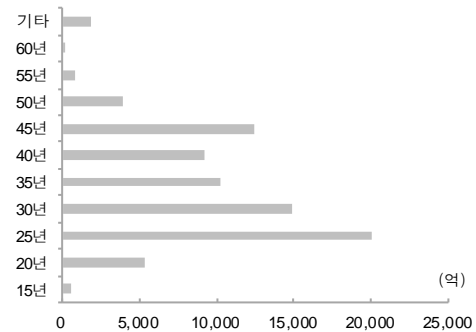
국내는 Fn-Spectrum기준으로 16개 운용사에서 130개의 TDF가 출시되어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1년에 가장 빨리 소개했지만 2016년 삼성자산운용의 TDF 출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TDF 시장은 2017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3월말 현재 설정액은 약 7.9조, NAV는 10.6조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Target Date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25년 유형의 설정액이 2.0조로 가장 규모가 크고 2030년 유형이 1.49조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 39. 국내 TDF 설정액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3-31기준

도표 40. Target date별 TDF 설정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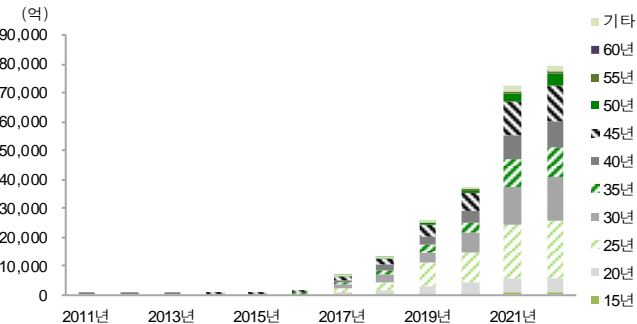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TDF 중 2025년 유형이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며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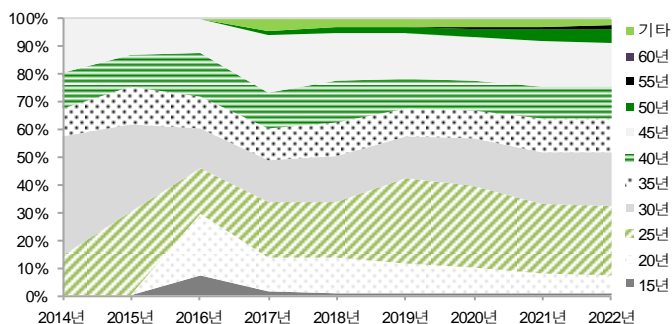
Target Date별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2025년 TDF의 성장이 눈에 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가 이미 모아 놓은 노후자금 중 일부를 TDF에 투자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41. 국내 TDF의 Target Date별 설정액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2. 국내 TDF의 Target Date별 설정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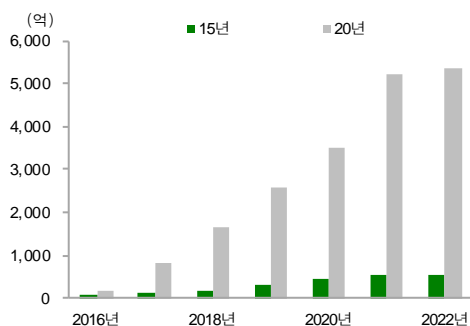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45년 유형은 30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며 빠르게 성장 중이며, 젊은 세대를 위한 2055, 2060TDF도 출시됨

2045년 TDF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요즘 사회 트렌드에 맞게 젊은 세대도 미리미리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2055년 2060년 TDF 도 신규로 론칭된 점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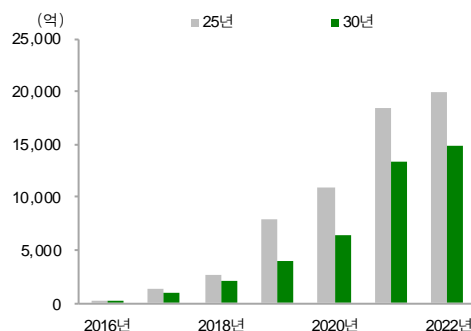
이외에도 다른 Target Date 유형도 대부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은퇴를 한 2015년, 2020년 TDF의 설정액도 Target Date를 지났음에도 아직은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TDF도 은퇴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미국 TDF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표 43. 2015, 2020년 TDF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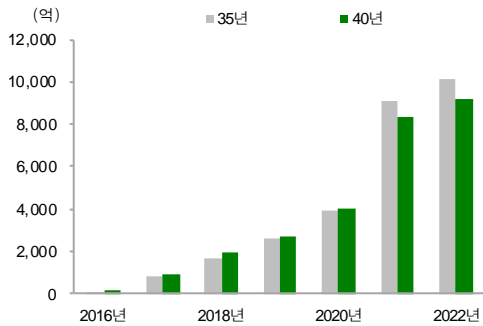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3-31기준

도표 44. 2025, 2030년 TDF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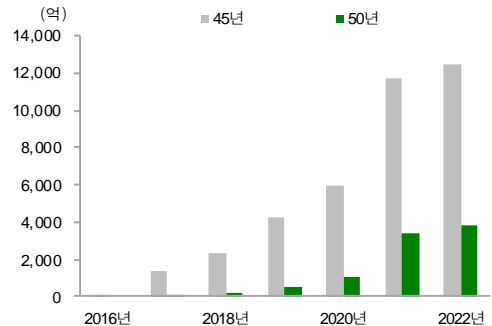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5. 2035, 2040년 TDF 설정액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3-31기준

도표 46. 2045, 2050년 TDF 설정액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개의 브랜드 TDF로 M/S 42%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삼성자산운용이 2개 브랜드 TDF로 M/S 20% 수준으로 상위사들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음

운용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배분’, ‘전략배분’ 등의 2개 브랜드 총 13개의 펀드로 설정액 3조 2,890억, 순자산 4조 5,130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삼성자산운용으로 ‘한국형’, ‘ETF를담은’ 등의 2개 브랜드 총 25개 펀드로 설정액 1조 6,214억 순자산 규모는 2조 3,196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알아서’ 브랜드 15개의 펀드로 설정액 9,663억, 순자산 규모는 1조 3,425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KB자산운용으로 ‘다이나믹’, ‘온국민’ 등의 2개 브랜드 총 12개 펀드로 설정액 8,222억 순자산 규모는 1조 191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사의 M/S는 92%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신한자산운용으로 ‘마음편한’, ‘안심지속’ 등의 2개 브랜드 총 8개 펀드로 설정액 5,927억 순자산 규모는 7,377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 5개사의 M/S는 92%로 미국과 같이 상위사가 시장의 M/S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와 제휴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운용이
증가하는 추세

국내 TDF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용사들이 TDF의 핵심인 글라이드 패스 관련한 노하우를 비롯해 선진 운용기법을 배우기 위해 글로벌 TDF 운용사와의 제휴를 통해 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체 글라이드 패스 개발을 통해 TDF를 운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선두로 성장했다. 이에 최근에는 KB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도 제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용을 시작했으며 일부 운용사들도 자체 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표 47. 국내 TDF 운용사별 펀드수, 설정액(증감), 순자산, 기타 현황

| 운용사 | 펀드수 | 설정액 | 설정액 증감* | 순자산 | 브랜드 | 제휴여부 |
|------------|-----|--------|---------|---------|-------------|---------------------------|
| 미래에셋자산운용 | 13 | 32,890 | 3,314 | 45,130 | 자산배분, 전략배분 | 자체운용 |
| 삼성자산운용 | 25 | 16,214 | 654 | 23,196 | 한국형, ETF를담은 | Capital Group |
| 한국투자신탁운용 | 15 | 9,663 | 383 | 13,425 | 알아서 | T.Rowe Price |
| KB자산운용 | 12 | 8,222 | 508 | 10,191 | 다이나믹, 온국민 | Vanguard → 자체운용 |
| 신한자산운용 | 8 | 5,927 | 863 | 7,377 | 마음편한, 안심지속 | MAQS |
| 키움투자자산운용 | 6 | 2,024 | 351 | 2,601 | 키워드림 | SSA → 자체운용 |
| 한화자산운용 | 7 | 1,199 | 128 | 1,586 | LlifePlus | JP Morgan |
| 메리츠자산운용 | 5 | 612 | 99 | 709 | 프리덤 | 자체운용 |
| NH-아문디자산운용 | 6 | 517 | 104 | 664 | 하나로 | Wells Fargo |
| 우리자산운용 | 6 | 386 | 41 | 442 | 다같이 | BlackRock |
| BNK자산운용 | 4 | 379 | 56 | 365 | 든든한 | Dimensional Fund Advisors |
| 교보약사자산운용 | 6 | 376 | 1 | 421 | 평생든든 | AXA IM |
| 신영자산운용 | 3 | 366 | 36 | 387 | 신영 | MERCER |
| 하나UBS자산운용 | 6 | 126 | 6 | 161 | 행복한 | 자체운용 |
| IBK자산운용 | 6 | 109 | 20 | 114 | 로우코스트 | Principal |
| 대신자산운용 | 2 | 107 | 0 | 105 | 해드림 | 자체(로보AI) |
| 총합계 | 130 | 79,116 | 6,566 | 106,87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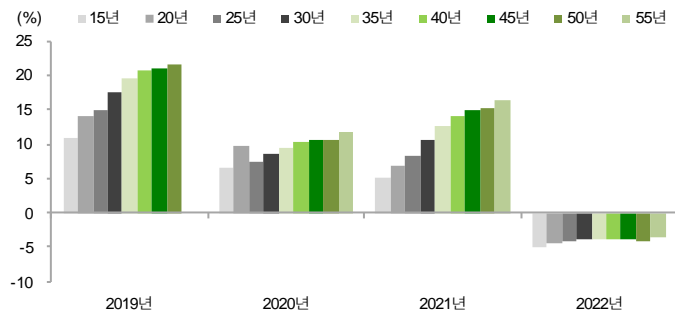
단위: 억, 설정액순 정렬, 2022-03-31 기준 * : 전년말대비

자료: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Target Date가 멀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 증시
상승기에 우수한 성과 기록

Target Date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Target Date가 멀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고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은 영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2019년과 2021년 연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Target Date가 멀수록 위험자산인 주식형 비중이 높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도표 48. 국내 TDF의 Target Date별 평균 연간 수익률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2022년은 3월말 기준 YTD수익률임

올해 연초 이후 성과는
Target Date가 멀수록
채권 비중이 적고
이머징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방

개별 Target Date Fund의 성과 등을 살펴보면, 올해 연초이후 수익률 (YTD)을 기준으로 보면 Target Date가 멀수록 올해 약세를 보인 채권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머징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방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Target Date 유형 내에서 펀드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글라이드 패스와 편입되어 있는 피투자 펀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운용기간이 더 길어지면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보다 자세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TDF의 성장이 기대됨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의 100%까지 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지난 해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면 이에 적합한 펀드인 TDF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투자가 증가하는데 최근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TDF를 활용하여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하반기 제도 변화와 함께 TDF의 성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DF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한편 TDF의 보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국내 TDF의 평균 보수율은 0.92% 수준으로 통상 0.9% ~1.35% 내외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일부 TDF의 경우 0.55% 수준의 낮은 보수율을 가진 펀드도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율을 가진 TDF도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점점 더 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금융기관의 준비가 충분히 되면 CIT와 같은 Target Date 관련된 금융 상품이 등장할 수 있어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TDF는 펀드마다 글라이드 패스 및 운용전략 차이, 투자자산 차이, 그 외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초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 변수 및 장기 전망, 각국의 통화 정책, 국내외 정부 정책,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 등 다양한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각 펀드의 운용철학, 운용 전략,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 및 자산배분 현황 등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게 투자하길 권한다. 또한 초장기간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잘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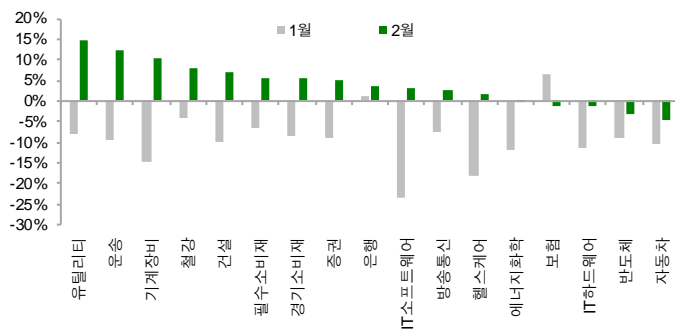
1.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

| 지수 | 22년 2월말 | 1M대비 | 3M대비 | 6M대비 | 1Y대비 |
|---------------|------------|--------|--------|--------|--------|
| 코스피 | 2,699.18 | 1.35 | -8.08 | -13.87 | -10.41 |
| 코스피 200 | 361.54 | 0.99 | -6.11 | -11.87 | -11.80 |
| 코스닥 | 881.07 | 0.94 | -12.41 | -13.92 | -3.60 |
| 나스닥 종합 | 13,751.40 | -3.43 | -11.50 | -9.88 | 4.24 |
| S&P 500 | 4,373.94 | -3.14 | -4.23 | -3.29 | 14.77 |
| 니케이 225 | 26,526.82 | -1.76 | -4.65 | -5.56 | -8.42 |
| 항셍 | 22,713.02 | -4.58 | -3.25 | -12.23 | -21.63 |
| 홍콩 H | 8,023.93 | -3.90 | -4.12 | -12.63 | -28.66 |
| 대만 가권 | 17,652.18 | -0.28 | -0.01 | 3.56 | 7.29 |
| 상해종합 | 3,462.31 | 3.00 | -2.85 | -2.30 | -1.33 |
| 싱가폴 STI | 3,242.24 | -0.23 | 6.61 | 6.13 | 9.94 |
| 인도 SENSEX | 56,247.28 | -3.05 | -1.43 | -2.27 | 14.56 |
| 인도네시아 IDX종합 | 6,888.17 | 4.87 | 2.82 | 12.68 | 9.52 |
| 태국 SET | 1,685.18 | 2.21 | 7.43 | 2.83 | 12.59 |
| 베트남 호치민 | 1,490.13 | 0.76 | 0.79 | 11.92 | 27.53 |
| 독일 DAX | 14,461.02 | -6.53 | -4.23 | -8.68 | 4.89 |
| 영국 FTSE 100 | 7,458.25 | -0.08 | 5.65 | 4.76 | 15.04 |
| 프랑스 CAC 40 | 6,658.83 | -4.86 | -0.93 | -0.32 | 16.76 |
| 이탈리아 FTSE MIB | 25,415.89 | -5.21 | -1.54 | -2.28 | 11.24 |
| 브라질 BOVESPA | 113,141.90 | 2.67 | 6.93 | -6.35 | 0.79 |
| 러시아 RTS | 936.94 | -27.75 | -43.75 | -43.34 | -35.40 |

*단위: pt,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2. KRX업종별 수익률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2-02-28기준

3. 주요 금리 등락률

| 금리 | 22년 2월말 | 1M대비 | 3M대비 | 6M대비 | 1Y대비 |
|-----------------|---------|-------|-------|--------|--------|
|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 1.39 | 11.30 | 32.30 | 49.00 | 80.00 |
| CD유통수익률(91) | 1.50 | 0.00 | 24.00 | 58.00 | 76.00 |
| CP(91일) | 1.63 | 0.00 | 15.00 | 51.00 | 63.00 |
| 회사채(무보증3년AA-) | 2.86 | 9.00 | 48.20 | 102.60 | 80.10 |
| 회사채(무보증3년BBB-) | 8.70 | 6.40 | 46.70 | 57.30 | 26.60 |
| 통화안정(364일) | 1.54 | -0.20 | 19.10 | 48.60 | 85.60 |
| 통안채(2년) | 2.03 | 2.20 | 32.60 | 76.20 | 116.00 |
| 금융채(산금채1년) | 1.88 | 3.30 | 22.70 | 67.10 | 107.80 |
| 국채(국민주택채권1종5년) | 2.60 | 4.80 | 40.90 | 81.10 | 102.60 |
| 국고1년 | 1.50 | 4.00 | 21.10 | 43.90 | 83.00 |
|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 2.24 | 5.30 | 44.30 | 84.70 | 122.20 |
| 국고5년(국채관리기금채5년) | 2.47 | 7.20 | 46.00 | 81.70 | 101.90 |
| 국고10년 | 2.68 | 8.90 | 46.20 | 76.30 | 71.50 |
| 국채금리_미국국채(10년) | 1.82 | 3.80 | 36.60 | 51.50 | 42.70 |
| 국채금리_영국국채(10년) | 1.42 | 10.60 | 60.40 | 79.30 | 59.20 |
| 국채금리_일본국채(10년) | 0.18 | 1.00 | 12.50 | 16.00 | 4.40 |
| 국채금리_독일국채(10년) | 0.16 | 14.50 | 50.20 | 53.90 | 41.60 |
| 리보(미 달러) 1년 | 1.29 | 32.57 | 90.56 | 106.01 | 100.43 |

*단위: bp,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4. 주요 환율 등락률(WON/각 국 통화)

| 통화 | 22년 2월말 | 1M대비 | 3M대비 | 6M대비 | 1Y대비 |
|---------------|----------|--------|--------|--------|--------|
| 미국(달러) | 1,204.50 | -0.37 | 1.22 | 4.06 | 6.97 |
| 일본(100엔) | 1,042.36 | -0.76 | -1.17 | -1.01 | -1.50 |
| 홍콩(H.달러) | 154.14 | -0.59 | 1.00 | 3.62 | 6.19 |
| 중국(위안) | 190.76 | 0.48 | 2.21 | 6.44 | 9.75 |
| 싱가포르(S.달러) | 887.23 | -0.83 | 1.88 | 3.01 | 4.75 |
| 인도(루피) | 15.97 | -1.48 | 0.82 | 0.63 | 4.72 |
| 필리핀(페소) | 23.50 | -0.72 | -0.47 | 0.82 | 1.91 |
| 인도네시아(100루피아) | 8.40 | -0.36 | 0.84 | 3.32 | 6.06 |
| 태국(바트) | 36.89 | 1.46 | 4.18 | 2.76 | -0.46 |
|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 869.23 | 1.72 | 2.45 | 2.53 | -0.69 |
| 뉴질랜드(N.달러) | 810.87 | 1.98 | 0.00 | -0.78 | -1.24 |
| EU(유로) | 1,349.04 | -0.61 | -0.22 | -1.53 | -1.10 |
| 영국(파운드) | 1,613.01 | -0.74 | 1.51 | 1.21 | 2.81 |
| 스위스(S.프랑) | 1,306.33 | 0.21 | 0.76 | 3.12 | 5.08 |
| 러시아(루블) | 12.69 | -18.65 | -20.29 | -19.63 | -15.90 |
| 브라질(레알) | 233.26 | 2.34 | 9.81 | 4.48 | 14.58 |

*단위: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